

광주 친환경자동차 부품 인증센터 7월 준공

빛그린 산단에 충돌·충격·배터리 시험동 등 구축 전국 최초...각종 장비 구축작업 2022년 말 풀가동

전국 유일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인증 국가 기관이 광주 빛그린 산단에 들어선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착공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는 충돌, 충격, 배터리 시험동 등 3개 동의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7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을 31%를 보이고 있다.

건물이 완공되면 각종 인증·평가 장비 구축 작업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순차적 운영에 들어간 뒤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충돌·충격 안전성, 배터리 평가, 화재 재현 등 모두 26종 장비가 구축된다.

배터리 시험동은 8개 시험실로 구성되며, 5개는 배터리 화재·폭발에 대비한 방폭 구조가 갖춰진다. 또한, 2t 규모의 전기버스 배터리 시험이 가능한 진동 및 충격시험기가 설치돼 배터리 침수시 안전성을 평가하는 침수 및 압착시험기가 설치된다.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된 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험 방법에 맞춰 신설되는 12개 시험 중 11개를 광주에서 우선 수행한다.

충돌 시험동은 초소형 전기차부터 총 중량 3.5t 이하 자동차까지 충돌 안전성을 연구하고자 차량 시속 100km 충돌 속도를 구현하는 시설을 갖춘다. 충격 시험동은 내부충격시험실 등 운전자의 안

전을 위한 부품의 구조 강도를 평가하는 시설이다.

현재 국내에 충돌·충격 시험을 모두 하는 인증·시험기관은 경기 화성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유일하다.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한 부품 인증센터 설립으로 남부권 제작 업체의 연구 개발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다.

시험평가 장비가 모두 구축되면 국가정책 사업으로 수행중인 자동차 제작 결함조사 및 자동차 안전도 평가 중 친환경자동차 전 차량의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및 부품을 개발하는 제작사를 위해 안전기준 평가 인증시험을 수요에 맞춰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미래형 자동차의 국제안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초연구도 수행할 수 있다.

인증센터는 오는 7월 센터 준공 이후 장비 구축이 완료되면 9월 배터리 시험동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충돌 및 충격시험실을 운영한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개발, 평가, 인증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시설"이라며 "지역 친환경차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빛그린산단에 조성중인 전국 유일의 친환경자동차부품 인증센터의 배터리 시험동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아래는 부품인증센터 조감도

영암 육용오리 농장서 AI 확산...국내 48번째

영암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지난 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판정이 나왔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최근 "방역기관의 예방·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환원이 검출된 이 농장을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8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가금농장과 체협농원 48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중수본은 발생지 반경 3km 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하고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은 30일간 이동을 제한하면서 일제 검사를 시행한다.

영암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이로써 전남도내에서는 지난달 4일 이후 오리 농장 10곳과 닭 농장 1곳 등 농장 11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전남도, 전국 최초 지원

전남도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종 교육·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한다.

전남도가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진로탐색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급하는 수당이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상생협력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대상은 전남도내 거주한 만 9세부터 18세 이하(2003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후 센터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에 월 6회 이상 참여하면 매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의 경우 초등(만 9세~12세)학생은 월 5만원을 교통카드에, 중(만 13세~15세)·고등(만 16세~18세)학생은 각각 월 10만원과 20만원을 체크카드에 적립해준다. 지원금은 교통비와 간식비, 교육비, 진로 개발을 위한 문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전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검정고시 준비, 진로 탐색 및 취업 준비 등을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23개소 운영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전남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부의 코로나19 교육재난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시민이 만든다

20년 후 주거·교통 등 미래상 11일부터 홈페이지 의견 접수

광주시가 20년 후 광주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 의견을 모은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11일부터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20년 후 광주의 미래상과 공간구조, 생활권, 주거, 교통, 관광, 산업경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의견 수렴은 2040년 광주의 미래상과 계획 목표를 설정하는 '시민참여 기획단'과 함께

'2040 광주 플랜' 홈페이지(www.2040gplan.kr)에서 이뤄진다.

'2040 광주 플랜'은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에코라이프,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등이 참여한 '시민참여 기획단'이 시민 눈높이로 담은 도시계획의 시기별, 단계별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11일에는 1단계로 ▲도시 역사 ▲'내가 상상하는 20년 후 광주의 모습'에 대한 질문과 답변 ▲도시 기본계획을 홍보하는 영상 ▲교육영상 ▲도시의 역사와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담은 카드뉴스 ▲'2040 광주 플랜, 시민이 말한다'라는 주제의

UCC 공모전 광고 등이 게시된다.

3월초에는 2단계로 시민 의견과 학술연구진의 검토 결과가 어우러진 각종 영상, 뉴스자료, 의견 수렴 공간이, 3단계로는 시민 의견이 도시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최종 진행상황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의견은 광주시 홈페이지 '2040 광주 플랜' 배너 또는 '2040 광주 플랜'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코로나 진행상황 변화를 살펴 시장과 구청, 터미널, 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장흥해역 '관리수면' 지정...새조개 분쟁 해소

5월 31일까지 새조개 552t 채취

장흥 회진면의 신상해역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돼 '바다의 모토'로 불리는 새조개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10일 "장흥 회진면 신상해역 119ha를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잠수기와 양식장 형망을 이

용해 새조개 552t을 채취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장흥군에서 신청한 새조개 수산자원관리수면에 대해 전문기관(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서식실태 보고서 및 업종간 분쟁, 관계법령 등을 검토해 지정했다.

장흥군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수산자원관리

수면 지정 신청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자연산 새조개 채취를 둘러싸고 공유수면에서 조업이 가능한 잠수기수협 조합원과 장흥 지역 어촌계의 갈등으로 어업분쟁이 해소되지 않아 관련 신청서가 반려되면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잠수기수협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새조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 어업인 간 분쟁해소 및 상생 방안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잠수기 어업인과 장흥군 어업인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했다.

기본 계획 수립은 ▲20년 후 광주의 미래상과 계획 목표를 설정하는 '시민참여 기획단' ▲광주의 미래변화 예측을 통해 장기발전구상을 수립하는 '학술연구단' ▲기존 계획의 문제점 진단과 2040 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문가 자문단' 등 3개 협업체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재식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은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방식이었다면 '2040년 도시기본계획'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도시계획의 틀을 짜는 시민주도형 참여방식이다"면서 "전국적으로도 처음 실시하는 실험적인 도전만큼 일반 시민, 청소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새조개는 인공양식이 어려워 생산량과 생산지역 예측이 불가능해 가격 또한 비싼 편이다. 이로 인해 자원이 서식하는 지역마다 업종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새조개 인공양식 생산 및 제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새조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어업인 분쟁해소 방안 및 사례를 발굴해 홍보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화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학과	27
	한국어교육학과	4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13
사범	유아교육과	5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18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학과	13	1		
	한국어교육학과	4			4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15	1		
사범	유아교육과	2		1	
예능	음악학부	8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1. 12(화) ~ 25(월)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형일: 2021. 1. 18(월)

원서접수는 정시모집 2021. 1. 7(목) ~ 11(월) 편입모집 2021. 1. 12(화) ~ 25(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